

김일성 주체사상의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 통치이념의 철학적 기초와 집단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박요한** 이현주***

| 목 차 |

I. 서론	발현 양상
II. 이론적 배경	IV. 결론 및 시사점
III. 김일성 주체사상의 집단정체성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귀스타브 르봉의 '심리학적 군중'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 집단정체성 형성과 변화와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북한이 '심리학적 군중'을 통해 집단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특정한 자극 요인'은 '6.25전쟁과 미국'이며, '무의식적 요소'는 '한(韓)사상'이며, '정신적 감염'은 '군중노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통적인 한(韓)사상의 계승과 종교적·정치적 변형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시대에 따라 ① 마르크스 레닌철학과 한(韓)사상이 결합하는 첫 고리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 있으나, ② 권력 독재의 수단인 수령론에 의해 왜곡되고, ③ 권력세습의 목적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변형되며, ④ 공산권 붕괴로 밀어닥친 체제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의 인간중심철학론으로 되돌아와 ⑤ 핵무력의 개발과 핵체제 완성이라는 현상적 실체의 구현, 즉 유물사관의

* 본 논문은 박요한(2014a, 257-296; 2014b, 321-345; 2015a, 11-31; 2015b, 239-274), 이현주(2011a; 2012, 135-171; 2016a, 97-115; 2017b, 211-230)의 논의를 융합 발전시켜 작성되었음.

** 제1저자: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 교신저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전문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강사.

물리적 실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며 그 핵심고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한(韓)사상이다.

- 주제어: 김일성 주체사상, 한(韓)사상, 한반도 핵무력체제, 북한 집단정체성, 군중심리학

I. 서론

본 연구는 북한의 한반도 핵무력 구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의 실체는 ‘한(韓)사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변형된 한(韓)사상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통한 북한의 집단정체성 형성과 변형과정의 양상을 분석해 핵무력의 속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며 그 핵심고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한(韓)사상임을 논증하려 한다.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에 근거해서 생기는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정체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Tajfel 1982). 사회정체성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지지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사회정체감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정태연 2000, 268-284). 파슨즈에게 있어 가치 지향은 통합의 중심 명제이며, 공통가치, 공통문화의 전승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규범에서 사회통합의 기저를 찾고 있다(전숙자 1997, 83).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정체성의 형성 결과 대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3대 세습을 이루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현주 2016a, 302). 북한의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을 정점으

로 하는 당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후계체제를 강화하고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개정되었다. 푸코는 ‘특정 지식 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에 의해 집단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 김일성 유일사상체제의 ‘특정 지식 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을 분석하여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한 바 있다(이현주 2016a, 291). 또한,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집단정체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284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었고,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집단정체성의 성격은 ‘규범적(또는 강제적) 성격’과 ‘자발적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충성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2011a, 240; 2011b, 310; 2013, 170; 2016a, 109; 2017b, 210). 이를 근거로 북한의 집단정체성을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하였다(이현주 2016a, 109; 2016b, 299; 2017b, 219; 2017c, 30).

그러나 북한의 집단정체성 성격 규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북한 핵무력 집단정체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무력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실현이라면 김일성 주체사상의 속성은 무엇인가. 북한이 사상과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핵무력을 개발하여 한반도 핵체제를 이룩한 집단정체성의 형성 배경에 대한 분석이 보다 심도 깊게 통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드(Mead)와 고프만(Goffman) 등에 의하면 모든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한다(박종일·김은정 2008, 185-188). 구성주의에 의하면 ‘집단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집단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유사한 조건에 놓인 다수의 행위자들과 동류의식을 공유하게 될 때 집단은 새롭게 탄생하고 그 고유의 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Rogers & Cooper 2000, 11).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통치사상으로 수용한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지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집

단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수용하였던 통치가치의 근원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북한사회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수용하였던 통치가치의 근원을 ‘한(韓)사상’이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韓)사상의 정치사상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한(韓)사상은 통일한국의 사상적 가치로써 여전히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 작용되었고 현재 실현되고 있는 한(韓)사상을 분석하여 북한에 구현되고 있는 한(韓)사상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통치사상 근간으로 활용된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북한의 통치사상과 체제유지의 비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귀스타브 르봉의 ‘심리학적 군중’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 집단정체성 형성과 변화와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원과 원리

주체철학의 기원은 고대로부터 시작되어 중세기까지 서양문명사를 가로지른다. 주체는 ‘인간과 세계를 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고뇌에 대한 해답이며 인류문명사는 주체철학 고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르네상스와 근대 산업혁명 이후 신중심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철학으로 대체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와 제도로 현시화된다(박요한 2015a, 245; 2015b, 25; 2016a, 233; 2016b, 172).

그러나 ‘소유권’이 그 핵심고리인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본독점과 노동력 착취라는 치명적인 모순을 낳고, 마르크스 레닌은 ‘물질 배분의 평등’을 본질로 하는 공산주의 폭력혁명에 성공, 인간과 공산당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전복하려 한다. 따라서 성공한 소련 공산혁명을 신생 독립국가인 북한에 이식하는 ‘1945-1948년’ 시공간 속에서, 북한의 기독교 교회와 사상은 송두리째 뽑혀 소멸되는 운명은 필연적이다.

요컨대, 주체사상이란 기독교 신중심, 즉 ‘바울세계관’에 맞선 마르크스의 인간중심철학의 도전과 전복에 그 기원이 있다. 마르크스 주체사상은 소련 공산혁명을 분단 북한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한(韓)사상’과 결합된 뒤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변용된다. 인간과 물질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인 인간중심철학이 북한에 이식되기 위한 매개적 토양은 바로 전통적인 한(韓)사상과의 결합이었다. 한(韓)사상은 동양에서는 보기 드문 다차원의 초월적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는, 즉 기독교의 창조주와 인격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풍부한 전설과 신화로 축적되어 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한(韓)사상은 인간과 신이 서로 주반(주도자와 반려자)이 되어, 때로는 분리되고 때로는 한 몸이 되어 공진하는, 한민족 특유의 사상체계로 이미 역사화되어 있다(박요한 2014a, 280; 2015b, 270).

김일성은 헤겔-마르크스의 변증법에 반하는 새로운 변증법을 스스로 창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 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이라는 것이다(이현주 2017c, 30). 그러나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사상은 기존에 한반도에 면면히 유지되어 온 한(韓)사상을 토대로 마르크스 레닌의 인간중심철학을 받아들이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韓)사상은 외래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 정신과 철학의 시원사상을 말한다. 유교, 불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철학적 사상이 한(韓)사상이다. 그러므로 한(韓)사상은 한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파악하고 삶의 의미, 가치와 표준, 힘과 꿈을 주는 사상을 의미하며 철학, 종교, 윤리, 도덕, 그 밖의 정치, 경제의 모든 면에 사상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한(韓)사상이 가진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에서 한(韓)사상의 특징이 나타난다(최민홍 1987, 160). 최치원은 그의 “난랑비서문”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이를 풍류”라고 했다. ‘풍류’란 순수한 우리말의 ‘밝’이 한자로 전음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책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에서 우리 민족을 한(韓)족으로 해석하며 ‘한’은 ‘크다’ 혹은 ‘높다’는 뜻으로 중국에서 건너온 종족이 아닌 토착종족이라고 하면서 한족의 긍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정약용 1990, 19).

한(韓)사상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는 김상일은 한(韓)사상의 세 가지 특징을 한(韓) 개념 속에 포함된 절대무(지기), 인격신, 그리고 사회변혁의 실천상을 3대 특징으로 보았다(고익진 1988, 180).

김상일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의 사상으로부터 일탈에서 시작한다는 주장을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의 맥락에서 이해하였다(김상일 2000, 145). 김상일은 한철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첫째로 그 기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원형적(原形的, prototype)’인 것과, 둘째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조형적(祖形的, archetype)’인 것과, 셋째로 서양철학같이 이질적인 타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되어 비판적 논리를 거쳐 한국적인 것이 된 ‘변형적(變形的, transtype)’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형적인 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언급되어 온 불교나 유교 그리고 도가사상 같은 한국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원형적인 것은 문헌적으로 그 근거와 근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한국역사 속에서 면면히 흘러내려 오면서, 조형적인 것 그리고 변형적인 것들 속에서 변혁의 매개체적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원형적인 것은 비록 현재 문헌적 근거를 밝히기 어렵기는 하지만 조형적인 것과 변형적인 것들 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규명하기가 차라리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일은, 이 세 부류의 사상들은 나중 것이 먼저 것을 포함하면서 한 단계씩 넘으면서 한국 철학을 형성해 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형은 조형 속에, 조형은 변형 속에 불멸(不滅, immortal)하여 사상은 축적되면서 변형되어 간다고 보았다(김상일 1993b, 44).

따라서, 김일성 주체사상은 한(韓)사상의 변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기존에 한반도에 면면히 유지되어 온 한(韓)사상을 토대로 하여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의 인간중심철학을 받아들이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이후라 볼 수 있다. 그 후 유일사상체계가 제시되고 ‘수령론’이 등장하면서 변형되어 1인 독재체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일사상체제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인 체제에 대한 충성과 신뢰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이현주 2012, 135; 2016a, 277).

김일성 주체사상은 시대에 따라 ① 마르크스 레닌철학과 한(韓)사상이 결합하는 첫 고리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 있으나, ② 권력 독재의 수단인 수령론에 의해 왜곡되고, ③ 핏줄로 권력을 승계하려는 목적과 함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변형되며, ④ 공산권 붕괴로 밀어닥친 체제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의 인간중심철학론으로 되돌아와 ⑤ 핵무력의 개발과 핵체제 완성이라는 현상적 실체의 구현, 즉 유물사관의 물리적 실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라 볼 수 있으며 그 핵심고리는 한(韓)사상이다.

2.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학

‘사회심리학’과 ‘정치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귀스타브 르봉은 집단심리학 연구를 개척했다. 무의식을 강조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뒤르케임과 베버를 중심으로 집단의식을 개인 행위와 연결시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한 것이었다. 그는 근대 이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대중과 집단의식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군중’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사람들의 결합체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특성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갖는다. 그의 군중심리학에 의하면 ‘심리학적 군중’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특정한 자극 요인’, ‘무의식적 요소’, ‘정신적 감염’ 등이 있다(귀스타브 르봉 2017, 40-48).

북한의 집단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특정한 자극 요인’으로 ‘6.25전쟁과 미국’이라 볼 수 있으며, ‘무의식적 요소’로는 ‘한(韓)사상’이라 볼 수 있으며, ‘정신적 감염’으로는 ‘군중노선’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북한 집단정체성 형성 요인에 의해서 북한의 정치 이데올로기인 김일성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제를 구축하고 3대 세습을 이루어 내었으며, 사상과 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핵무력을 개발하여 현재 한반도 핵무력체제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 핵심적 고리는 집단정체성 형성 요인으로써 ‘무의식적 요소’인 ‘한(韓)사상’이다. 군중의 심리학적 특징들

중에서는 고립된 개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특징들은 이와는 반대로 오직 집단들 속에서만 발견된다. 군중심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할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다(귀스타브 르봉 2017, 44).

3. 분석틀

(1) 특정 자극 요소(6.25전쟁과 미국)

‘조직된 군중’, 또는 ‘심리학적 군중’은 하나의 단일한 존재를 형성하며 군중의 정신적 통일성의 법칙에 종속된다. 수많은 개인들이 우연하게 나란히 서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조직된 군중의 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분명한 목적 없이 공공장소에 우연히 모인 천 명의 개인은 결코 심리학적 군중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 같은 군중의 특성을 획득하려면, 우리가 그 본질을 규명해야만 할 특정한 자극적 요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의식적 개성이 사라지고 감정 및 사고가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직되어 가는 군중의 첫 번째 특징이지만 여러 개인들이 항상 한 장소에 동시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고립된 수천 명의 개인도 특정 순간에 어떤 격렬한 감정의 영향 - 예를 들어, 커다란 국가적 사건의 영향 - 아래 심리학적 군중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을 결합하는 어떤 하찮은 우연만으로도, 그들의 행동은 즉시 군중 특유의 행동양식을 띠기에 충분할 것이다(귀스타브 르봉 2017, 44).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또 깊은 전쟁 후유증을 앓고 있다. 따라서 전쟁과 폭력이 어떻게 북한의 전쟁체제를 형성하고 진화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북한의 많은 부분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지 보여준다(이현주 2017c, 172). 따라서 북한의 집단정체성 형성의 특정 자극 요소는 ‘6.25전쟁과 미국’이다. ‘6.25전쟁과 미국’이라는 특정 자극 요인은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북한체제를 전쟁 중인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정 자극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 북한의 ‘심리학적 군중’은

북한은 유일사상체제를 구축하고 3대 세습을 이루며 사상체제의 위기 시에 핵무력을 개발하여 한반도 핵체제 구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핵무력의 운명 정체성의 미래상은 ‘핵을 보유한 경제 강성대국’이라는 북한의 국가 목표와 백터로 디자인되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시키는 동안 미국과 핵무력의 폐기 협상과정을 통해 시간을 비축하기 위해 고단위적이고 격렬한 ‘핵 능력 검증 최전선 격돌’과정이라는 외교적 고도 전술을 전개한다(박요한 2016a, 144).

(2) 무의식적 요소[한(韓)사상]

우리의 의식적 행동은 특히 유전적 영향으로 형성된 무의식적 하부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이 무의식적 하부구조는 민족의 정신을 구성하는,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수많은 본능적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원인들 뒤에는 우리도 모르는 은밀한 원인들이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는 숨겨진 동기의 결과이다. 한민족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이 서로 닮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 민족의 정신을 구성하는 무의식적 요소들 때문이다. 따라서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고 어떤 민족의 정상적인 개인들 대다수가 거의 같은 정도로 소유하는 성격의 일반적 자질이 바로 군중의 공통적 특징이다. 이러한 집단정신 속에서 개인의 지적인 자질인 개별성이 사라진다. 이질성이 동질성과 섞이고 무의식적 자질이 지배하게 된다(귀스타브 르봉 2017, 46-47). 군중을 구성하는 생각과 감정의 고정된 방향으로의 전환, 그들 개성의 사라짐(군중은 항상 무의식에 의해 지배된다)과 이성적 활동의 사라짐과 감성적 활동의 우세함(지능의 낮아짐과 감정의 완전한 변형), 변형된 감정은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감정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다. 군중은 범죄적일 뿐만 아니라 쉽사리 영웅적이 되기도 한다(귀스타브 르봉 2017, 41).

‘한(韓)사상’은 이론화된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지는 않지만 단군신화와 천부경을 비롯한 여러 신화와 고유의 사상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한(韓)사상은 외래종교를 수용하는 바탕으로 작용하여 민족사상의 흐름으

로 지속되고 있으며 19세기 중반에 동학, 증산교, 원불교, 대종교로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외래의 사상과 종교가 한국에 와서 새롭게 재해석되면서도 그것이 원래의 사상과 종교가 가진 한계마저 뛰어넘는 보편적 논리와 원리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 속에 ‘한’의 다의적이고 함축적인 뜻이 여러 사유방식을 포용하여 원용하게 회통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사상적 유전자로서 그 특성이 이어져 오기 때문이다(김재범 2014, 177).

따라서 북한 집단정체성 형성의 무의식적 요소는 한(韓)사상이라 볼 수 있다. 한(韓)사상은 한민족의 구성원들에게 삶의 의미, 가치의 표준, 희망, 꿈을 담고 또한 그것을 주기 위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한(韓)사상은 한반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상일지라도 한(韓)사상의 영토적 범위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韓)사상의 ‘한’이라는 말이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넓은 의미와 그 오래된 역사와 철학적 보편성과 심오성 때문이다(김상일 1993a, 27).

① 인격신(人格神)

한(韓)사상의 인격신은 ‘사람 속에’ 또는 ‘사람 가운데’에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니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로써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로 녹아 들어가 천·지·인(天·地·人)의 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본성인 신성(‘하나’)을 깨달음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천·지·인 삼신일체(三神一體)가 인간 존재 속에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인간의 자기실현을 말한다(최민자 2015, 115). 북한에는 수령이 인격신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요한 2015a, 11-31). 북한의 모든 주민은 인격신인 수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김일성의 역사적 지위는 고조선의 단군, 고구려의 주몽과 같은 건국의 시조와 같은 역사의 설립자로서 추앙되고, 그의 사망과 함께 주체력(self-calender)을 탄생시켜 사회적 생명으로써 시간성을 연장한다. 그의 강시는 영생불멸하는 역사 속의 전쟁의 화신(化神)으로서 만수산 궁전에서 존속되고, 주체사상연구

소, 전 가정에 걸린 아버지 수령의 초상화, 마을 단위의 생활 현장마다 존치된 주체사상연구소와 동상의 형태로 부활하여, 인민들과 삶에 함께 일상화된다(박요한 2015a, 30).

② 절대무(지기)

‘한(韓)사상’의 절대무(지기)는 물(物)과 심(心)을 이원(二元)으로 보지 않고 오직 일원(一元)인 지기(至氣)의 운동에 의하여 물과 심이 생겼다고 본다. 따라서, 존재 문제를 유심과 유물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오직 지기일원실재체(至氣一元實在體)인 한울에 귀착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지기는 무한한 대립상극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일치의 통일력을 속성으로 하는 유일한 실재라고 보는 것이다. 최제우(崔濟愚)는 “지(至)는 지극한 것을 가리키고, 기(氣)는 허령(虛靈)이 가득하여 일마다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명령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며, 형상이 있으나 표현하기 어렵고 소리가 있는 듯하나 듣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혼원한 하나의 기운이다.”라고 하였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유심과 유물의 대립모순을 일원적인 유일실재의 관점으로 통합시킨 입장이라 할 수 있다.¹⁾ 이러한 ‘지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수령관과 집단주의 생활원리를 이론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개개인은 죽음으로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사회는 개인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회의 영원불멸설을 주장함으로써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고 있다. 영생의 발견은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완전한 자기충족적 사회로 완성되는 계기가 됐다. 주체사상을 새롭게 이론화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당·대중이 하나로 결합된 통일체로써 자주적 생명력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김병로 2016, 102). 이로써 김일성 주체사상은 종교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요한 2015a, 11-31). 북한은 변종성 사회주의, 초법적인 독재,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기일원론,”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099. (2017년 11월 5일 검색)

교조적 전체주의, 전쟁의 일상화 속에서의 군선(軍先)적 핵심 권력 집중으로 계층화된 군선준체주의 독재국가로써 그 양상이 다층화, 복합화, 자기조직화, 군사화되어 적어도 표층적으로는 살아서 혁명하는 유기적인 사회정치생명체로서 조직화되어 있다(박요한 2016b, 222). 개개의 인민은 당을 위하여, 당은 수령을 위하여, 수령은 인민을 위하여 운명공동체적 사회적 생명체로 재탄생하여, 민족의 재통일과 남한 인민을 미제 속에서 자주적, 주체적 인민으로 구명해내야 할 영구혁명을 위한 역사적 소명이라는 백터를 지향한다(서동만 2010, 211-297).

③ 사회변혁의 실천상

‘한(韓)사상’의 사회변혁의 실천상은 무한한 절대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자아성취를 의미한다.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서 사회를 변혁시켜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상을 체득한 존재임을 말한다. 내재적 본성인 신성(‘하나’)을 깨달음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하게 되는 인간(김영두 2006, 284)은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행위자로서 핵 무력은 백두혈통체제를 계승시켜 준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물리적으로 강제화하는 항상적(恒常的)인 안보 무력에 해당한다. 김정은 정권이 제시하는 ‘핵무력과 경제 병진노선’의 합의는 핵무력 보유와 진화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유지되고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자주적이고 자위적인 안보 능력이 구축되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박요한 2016b, 247).

(3) 정신적 감염(수령·당·대중이 결합된 군중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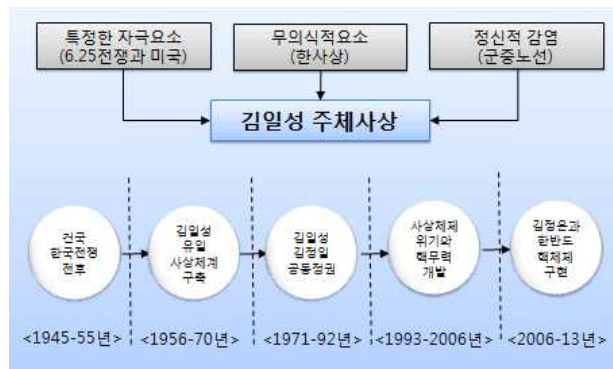
정신적 감염은 군중 속의 개인에게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개입한다. 감염은 그 존재를 확인하기는 쉬우나 설명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현상이다. 군중 속에서 모든 감정과 행동은 전염성이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도록 만들 정도로 전염성이 있다. 이것은 그의 본성과는 정 반대되는 자질이고, 그가 군중의 구성원이 아닐 때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자질이다(귀스타브 르봉 2017, 48).

김일성은 1946년 9월 ‘2차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연석회의’에서 인민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배우도록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대중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문예정책은 계급정책과 더불어 혁명과 건설의 달성을 위한 대중동원 방법 중 하나인 군중노선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오양열·임채욱 2012, 48). 따라서 기존 연구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의 가치와 잠재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문화예술에서의 군중노선은 문화예술을 직접 창조하고 향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중의 혁명화·노동계급화가 강화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혁명적 군중노선의 기본 요구는 첫째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둘째로,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이다. 셋째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김정일 1964, 519). 김일성 주체사상의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을 르봉의 군중심리학이론의 ‘심리학적 군중’ 형성 요인인 ‘특정한 자극 요소’, ‘무의식적 요소’, ‘정신적 감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르봉의 군중심리학으로 본 김일성 주체사상의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



Ⅲ. 김일성 주체사상의 집단정체성 발현 양상

본 장에서는 르봉의 군중심리학을 중심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집단정체성 형성과 한반도 핵무력체제 발현 양상을 시기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시기별로 북한 집단정체성의 변화는 앞의 <그림 1>과 같다. 시기별 특징은 건국, 한국전쟁 전후(1945-1955년), 일사상체제 구축(1956-1970년),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1971-1992년), 사상체제 위기와 핵무력 개발(1993-2006년), 김정은과 한반도 핵체제 구현(2006-2013년)이다. 본 연구는 특정 시기에 따라 김일성 주체사상의 집단정체성 발현양상을 ‘특정 자극 요소’인 ‘6.25전쟁과 미국’, ‘무의식적 요소’인 ‘한(韓)사상’, ‘정신적 감염’인 ‘수령·당·대중이 결합된 군중노선’으로 정리하였다.

1. 건국과 한국전쟁 전후(1945-1955년)

(1) 특정 자극 요소(6.25전쟁과 적대국 미국)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는 통치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6.25전쟁의 적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을 고취시키려 하였다. 에릭 발바흐는 “정체성이란 원래부터 타고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체성은 ‘나(자아)’와 ‘타자’의 구별을 통해 형성되며, ‘도덕적이고 비위협적인 나’에 반대되는 ‘비도덕적이고 위협적인 타자’를 통해서 설명된다”고 밝혔다(『아세아경제』 2014/10/26). 그는 북한인 자신의 ‘선(善)한 정체성을 악한 타자인 미국을 통해 형성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을 정치 갈등이 아닌 선과 악의 도덕적 대결로 대체해 왔다고 분석하였다. 외세인 미국은 북한에게는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며, 부도덕한 타자인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권리뿐 아니라 도덕성과 인간성에서도 부적격자한 국가로 타자화된다고 보았다(이현주 2016a, 101).

김일성은 ‘북조선 정부 수립’ 당시 항일 빨치산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했고, 민족해방전쟁의 명분하에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며, 전후 경제 복구사

업을 전개하면서 노선과 종파사건을 묶어서 파위엘리트들을 숙청, 제거하였다. 이 과정은 모택동이 중공정부 수립 이후 전개한 노선싸움과 종파적 결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마오쩌둥이 농민을 내세운 중국식 공산주의혁명에 성공하였다면, 김일성은 민족을 내세운 북한식 공산주의혁명에 성공하였다(박요한 2015b, 260).

(2) 무의식적 요소: 한(韓)사상의 인간존중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인간중심

김일성의 의식 형성에는 민족주의와 함께 동학의 ‘한(韓)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한(韓)사상의 영향으로 의식 속에 ‘주체’가 형성되었다고 북한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에서 ‘주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55년 12월 28일이다. 또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이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시기는 바로 1966년 당대표자 회부터이다(김정일 1991, 430). 이때는 당적사상체계라는 말로 쓰이고 있었다. 이후, 1967년에는 ‘유일한 당적사상체계’가 등장하였다(리능훈 1967, 2).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주체사상’이 처음 등장한다(정영철 2005, 125).

홍익인간의 ‘인간’은 개인의 사적 욕구와 취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의 개인에 대한 상대 개념일 것이다. 인간세상-공동체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단순한 개인들의 총합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고 구현하는 사회적 도덕적 실체로의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공동체로의 ‘인간’을 봉사대상으로 상정하는 홍익인간사상은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사상으로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개인의 자유보다는 평등, 권리(right)보다는 책임(responsibility), 가치에 대한 중립적 방입보다는 정의나 선에 대한 적극적 실천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의 확장과 산업화 진전에 따라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회적 윤리가 와해되며, 개인이 원자화되고 소외감이 확대되는 현상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다. 공동체주의는 이기적 개인들의

자유경쟁을 정당화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당연시하는 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에 반대한다. 인도적 동포애와 연대성을 강화하여 통합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며, 개개인들이 공동체의식으로 참여하고 결속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 및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정영훈 2016, 174).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홍익인간사상의 인간존중은 우리민족 고유의 한(韓)사상이다. 북한에 유지되어 온 한(韓)사상은 6.25전쟁 이후 북한의 건국 시기에 무의식적 요소로 작용하여 마르크스 레닌의 인간중심철학을 수용하였으며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한(韓)사상을 기반으로 마르크스 레닌의 인간중심철학을 수용하여 구현되었으므로 그 토대는 한(韓)사상이다.

(3) 정신적 감염(수령·당·대중이 결합된 군중노선)

북한의 문예정책 ‘20개조 정강’을 통해 “민주문화 과학 및 예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극장, 도서관, 라디오방송국 및 영화관의 수효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 1946년 3월부터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46년 9월 ‘2차 북조선 각도 인민위원회 정당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연석회의’에서 인민대중의 지혜와 창조력을 배우도록 강조하였다. 북한에서 문화예술을 그 미학 정서적 기능과 역할보다는 체제유지와 혁명·건설의 효과성을 보장해 주는 수단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는 기존의 연구시각은 김일성이 인민대중의 가치와 잠재력을 바라보는 인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이 수동적으로 문화를 향수하는 활동뿐 아니라 대중 스스로 예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진작하려는 정책지향성을 갖는데, 이러한 지향성이 바로 군중문화노선이다(오양열·임채욱 2012, 48-67). 북한은 전쟁 전후 시기에 군중문화노선을 활용하여 수령과 당 대중을 결합시켜 나가는 정책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구축(1956-1970년)

(1) 특정 자극 요소(6.25전쟁 복구와 적대국 미국)

김정일은 1964년 자신의 대학졸업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 단위의 지역별 자립발전의 중요성과 유사시를 대비한 자급자족체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군을 거점으로 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상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하다. (...)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쟁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 우리는 유사시에 군 안의 주민들의 생활을 군 자체의 힘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군들에 중소 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김정일 1964, 11).

지역자립체제의 골자는 전쟁 시에 대비하여 군(郡) 단위 이상의 200여 개 지역에 지역별 자립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자립체제는 자위국방 능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폐쇄적 발전전략은 지역 불균형과 산업구조 왜곡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폐쇄성이 더욱 심화되는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를 낳게 한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남한보다 3배의 인적 손실을 입은 북한은 계급에서 성분으로 계급노선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서 노동계급을 사회주의혁명의 핵심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농민이나 인텔리, 중산계층을 혁명에 끌어들이 나가도록 요구했다(김병로 2016, 7-10).

또한, 김일성은 계급노선과 적을 강조하며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사람들을 언제나 계급적 견지에서 평가하며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수와 우리 편을 엄격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 1962, 166).

(2) 무의식적 요소[한(韓)사상의 인격신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수령론]

‘한(韓)사상’의 인격신(人格神)은 ‘사람 속에’ 또는 ‘사람 가운데’에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니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로써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로 녹아들어가 천·지·인(天·地·人)의 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본성인 신성(‘하나’)을 깨달음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천·지·인 삼신일체(三神一體)가 인간 존재 속에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인간의 자기실현을 말한다(최민자 2015, 115-116).

북한에서 인간의 자기실현을 이룬 완전한 존재는 유일하게 수령이다. 북한의 수령론은 홍익인간의 재세이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재세이화는 세상에 있으면서 하늘의 이치로 다스려 교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체제에서 수령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인간관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써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운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 발전에 대하는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수령론’에 의하여 물질과 정신이 잘 조화된 이상적 인간인 ‘수령’에 의해서 영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민 대중의 창조성과 자유선택의 권리를 한정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인격신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존재는 수령이다.

권력시스템 구조의 관점에서 북한을 분석할 때 북조선의 수령, 군당, 인민의 사회 유기체적 결합 양식은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형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전쟁의 생태적 상시화와 수령의 절대 권력화 과정이 되먹임 구조로 역사화되면서 소수의 과두적 과워엘리트에 의해 통치되는 전쟁 군선 권력, 즉 3대 세습의 김씨 왕조 유일사상 종교화체계가 누리는 전쟁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현실화되어 있다. 이 전시상태체제와 군선(軍先) 전체주의 국가가 바로 북한만이 가능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시간 생성과 함께 그 시계의 조립이 가능한 공장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틀이다(박요한 2016b, 222).

(3) 정신적 감염(수령·당·대중이 결합된 군중노선)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현주 2016a, 109; 2016b, 299; 2017b, 219; 2017c, 30).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는 당 창건 초기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유일사상체계’는 전당을 김일성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당건설의 기본원칙이다. 통상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불리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전체 주민을 김일성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김일성에 의한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된 1967년부터 추진됐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선임되면서 주체사상을 체계화했으며, 김정일 전기에 따르면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 이와 함께 ‘혁명적 수령관’의 연장에서 후계자론을 제시함으로써 후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내 핵심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소위 ‘당중앙’이라는 호칭이 붙으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선임되면서 주체사상을 체계화했다. 김정일 전기에 따르면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 이와 함께 ‘혁명적 수령관’의 연장에서 후계자론을 제시함으로써 후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이종석 2000, 507).

우리 당의 군중노선은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며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김일성 1962, 263).

혁명적 군중노선은 노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의 진 과정에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대중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교양개조하여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발동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기본요구로 하는 영도원칙이다. 혁명적 군중노선의 내용, 기본요구에는 인민대중으

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 명시되어 있다. 혁명적 군중노선의 기본요구는 첫째로,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다(김일성 1962, 167).

3. 김일성·김정은 부자 공동정권(1971-1992년)

(1) 특정 자극 요인(6.25전쟁과 적대국 미국)

제국주의 미국 패권은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한 패권무력으로 규정된다(박요한 2015b, 245). 197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김일성체제에서 전개된 제2기 무역확대와 제한적 외자유치 단계의 실패 요인으로는 1973년에 불어 닥친 제1차 오일쇼크와 1·21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과 미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안보환경과 경제환경이 맞물렸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미국과 서구시장 등 국제사회를 향해 동력의 발원을 찾아 개혁개방의 노선선회를 하는 순간, 김정은은 ‘북한식대로 사회주의 혁명의 완결’을 외치면서 경제 동력의 발원지를 북한 내부로 돌리고 ‘제2 고난의 행군’을 선언, 국가시스템 작동원리를 선군정치로 변환시키고, 세계와는 격리된 그들만의 시공간 속에서 자위적 안보무력인 핵무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박춘대 2013, 265).

(2) 무의식적 요소[한(韓)사상의 지기와 김일성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한(韓)사상’의 절대무(지기)는 물(物)과 심(心)을 이원(二元)으로 보지 않고 오직 일원(一元)인 지기(至氣)의 운동에 의하여 물과 심이 생겼다고 본다. 따라서, 존재 문제를 유심과 유물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고, 오직 지기일원실재체(至氣一元實在體)인 한울에 귀착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지기는 무한한 대립상극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일치의 통일력을 속성으로 하

는 유일한 실재라고 보는 것이다. 최제우(崔濟愚)는 “지(至)는 지극한 것을 가리키고, 기(氣)는 허령(虛靈)이 가득하여 일마다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명령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며, 형상이 있으나 표현하기 어렵고 소리가 있는 듯하나 듣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혼원한 하나의 기운이다.”라고 하였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유심과 유물의 대립모순을 일원적인 유일실재의 관점으로 통합시킨 입장이라 할 수 있다.²⁾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하는 수령관과 집단주의 생활원리를 이론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개개인은 죽음으로 사라져 버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사회는 개인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회의 영원불멸설을 주장함으로써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고 있다. 영생의 발견은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완전한 자기 충족적 사회로 완성되는 계기가 됐다. 주체사상을 새롭게 이론화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당·대중이 하나로 결합된 통일체로서 자주적 생명력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김병로 2016, 99-112). 무한한 대립상극의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일치의 통일력을 속성으로 개인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회의 영원불멸설을 주장함으로써 집단주의 속에서 개인의 의미를 찾고 있다. 영생의 발견은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북한이 완전한 자기 충족적 사회로 완성되는 계기가 됐다.

(3) 정신적 감염(수령·당·대중이 결합된 군중노선)

북한은 1970년대 중반부터는 소위 ‘인간개조사업’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가치와 주체사상을 내면화시키려는 작업을 시도하여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집단주의·영웅주의 등을 강조했다. 1974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선포에 이어 1975년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라는 구호를 공개적으로 사용했으며, 1979년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집단과 조직에 헌신하는 주체형의 인간개조이론을 구체화했다(이종석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기일원론,”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099. (2017년 11월 5일 검색)

1993, 122). 북한은 현실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 이른바 ‘숨은 영웅’들로 그려낸다. 그 대표적인 예가 60년대 초의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70년대의 『피바다』, 『꽃 피는 처녀』 등에 나오는 주인공 따라 배우기이다(이종석 2000, 228-230).

우리 당이 오늘까지 그 복잡한 정세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계속 실패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올 수 있는 것은 군중노선을 관철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김일성 1982, 254).

김정일은 조직의 공고화를 위해 모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의 강화와 김정일이 도입한 당생활총화의 강화 등을 포함한 당을 중심으로 모든 근로자, ‘인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화 의식화를 실행한다. 이를 위해서 김정일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군중노선을 펼쳐가는데, 그것은 당적 지도를 중심으로 한 3대혁명소조운동이나 3대붉은기쟁취운동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의식화와 조직화를 강화하고, 당원을 철저히 전사화(戰士化)시키고자 하였다.

4. 사상·체제 위기와 핵무력 개발(1993-2006년)

(1) 특정 자극 요인(6.25전쟁과 적대국 미국)

탈냉전과 함께 중국과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동맹의 방위벽이 소멸되고 김일성이 사망한 뒤, 김정일은 국가의 문호를 닫는 동시 주체사상을 선군노선으로 변용하면서, 자위적 안보무력으로 규정된 핵무력 개발을 공식화한다(박요한 2015b, 240). 1991년 김정일의 제3기 제한된 경제특구로 경제개혁조치는 동구권의 붕괴와 북한의 고립 양상, 냉전적인 국내 경제체제와 격리된 제한된 경제개방의 실험공간적 성격 속에서 모두 실패했다. 2002년 김정일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제3기 경제정책기에 해당한다(박요한 2015b, 274).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에 몰아닥친 경제위기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에 없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북한의 거시경제 환경을 질적으로 변화시켰고, 식량난과 공장가동률 하락으로 배급제 및 소비품 공급 체계가 마비되었다. 국영상점이나 협동상점에 상품이 없고, 배급량이 줄고 국가유통망의 공백을 대체한 것이 암시장이다.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은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김연철 2002, 11-14). 1998년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의 소매 방북,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남북경제협력의 물줄기는 2002년 조지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과 9.11테러사건, 이라크전쟁으로 인하여 그 백터가 소멸되고, 북-미 간에는 평화에서 안보위기로 전환되었다(박요한 2015b, 239-274).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핵무력을 앞세운 미국과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등으로 이어지는 핵개발 경쟁과 확산노력은 국가의 자위적 안보의 사활이 걸린 경쟁이자, 냉전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했던 주요 요인이기도 하였다. 핵무력은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현상적 무력으로 지위를 차지했다. 이후부터 핵무력은 국가에게는 자위적 안보의 상징이자 패권무력의 현상적 실체로써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박요한 2016a, 276).

북한 핵 무력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과 건국, 한국전쟁과 주체사상, 미-중 데탕트와 7.4남북공동성명, 중국의 노선 선회와 구소련 연방 붕괴 도미노, 개혁개방 실패와 경제 실패,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선군사상, 과학기술과 자본 투입 등 북한의 국가 운명의 사활을 건 ‘최후의 도박’적 성격이 분명히 있다. 북한에게 핵무력은 역사 운명적, 주체사상적, 당과 인민 역량의 총화인 거대 인물성 네트워크에 해당한다(박요한 2016b, 143).

(2) 무의식적 요소[한(韓)사상의 인간존중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철학]

‘한(韓)사상’의 중심은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사상이다. ‘사람 속에’ 또는 ‘사람 가운데’에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니,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로 녹아들어가 천·지·인(天·地·人)의 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내재적 본성인 신성(‘하나’)을 깨달음으로써 천인합일(天人合一)

을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천·지·인 삼신일체(三神一體)가 인간 존재 속에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인간의 자기실현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韓)사상의 인간존중은 무한한 상태의 절대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1980년대에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측면의 체계화가 일단락된 후 인간중심철학이 더욱 강조됐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주체사상을 주체철학으로 발전시켰다. 즉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리를 제시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람 위주의 철학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원리와 자주적 입장 및 창조적 입장에 기초한 지도적 원칙을 도출함으로써 인류보편적 가치로의 발전을 시도했다. 남한에 널리 알려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입각한 인간중심철학으로써의 주체사상은 이 시기에 체계화된 것이다. 주체사상의 인간관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써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운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 발전에 대하는 세계관이다.

인간의 행동을 전적으로 구속하는 객관적인 필연적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객관적 필연적 법칙에 대해서도 주동적,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동적,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는 인간 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간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력이 장성함에 따라 객관적 법칙에 주동적,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는 더욱 증대되게 된다(황장엽 2008, 64).

그러나 주체사상은 ‘수령론’에 의하여 물질과 정신이 잘 조화된 이상적 인간인 ‘수령’에 의해서 영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민 대중의 창조성과 자유선택의 권리를 한정한다.

(3) 정신적 감염(수령·당·대중이 결합된 군중노선)

김병로는 전쟁 이후 북한이 구축한 체제는 단순히 자립(autarky)이나

폐쇄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았다. 전쟁 이후 땅굴과 산업시설의 지역분산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자립이나 폐쇄보다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의 차원에서 자기 총적적 기능이 훨씬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았다(김병로 2016, 7).

주체사상은 군중노선에 관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내놓음으로써 대중영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를 밝혔다. 주체사상이 밝힌 대중영도의 근본원칙인 혁명적 군중노선은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역사원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나온 원칙이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영도원칙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적 군중노선을 대중영도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면서 그 기본요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구체적인 해답을 주었다(김정일 1989, 41).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는 당의 노선과 정책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영도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영도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은 원칙적 문제로 나선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패는 당이 광범한 대중을 징취하는가 못하는가. 그들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가 못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당이 견지하여야 할 영도원칙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은 혁명운동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김정일 1989, 38).

김일성이 마오쩌둥을 타산지석으로 삼았듯이, 김정일은 중국 덩샤오핑을 반면교사로 삼게 된다. 중국 마오쩌둥체제가 양자인 왕홍원(王洪文)으로 계승되지 않고, 덩샤오핑으로 계승된 것은 혁명전통의 미완성 때문이며, 북한의 경우 김일성시대에 혁명전통이 완성되었고 혁명전통의 순혈주의에 따라 백두혈통의 장자인 김정일에게로 승계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논리이다. 이로써 김정일은 혁명전통의 순혈 계승자이자, 김일성의 육체적

핏줄(DNA)이 되며, 백두혈통이라는 용어는 ‘혁명전통의 순혈론’을 북한의 인민대중에게 운명적으로 각인시키는 동력으로 전화된다(박요한 2015b, 260).

5. 김정은과 한반도 핵체제 구현(2006-2013년) - 김일성 주체사상의 한반도 핵체제 구현

(1) 특정 자극 요인(6.25전쟁과 적대국 미국)

핵무력은 세계 2차대전의 종결자이자 절대성을 지닌 무력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철제전쟁과 핵체전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북한 핵무력의 기원은 제국주의(미국)와의 전쟁과 김일성이라는 주도자의 선택, 그리고 분단 한반도의 전시체제라는 환경에서 비롯된다. 항일빨치산 투쟁시기를 지나 북조선 정부를 수립한다(박춘대 2013, 244).

핵은 임자물질(thing)이자 파동원리(becoming)이 공진하는 무궁무진한 생성 과정이다. 생성은 관계의 지속성과 축적성, 연속성의 통일적인 융합 과정이다. 우주동학으로부터 발원한 핵무력의 물성은 우주적인 자기 충분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한계점에 존재한다(박요한 2016b, 96).

북한 핵무력은 2006년 필수통과지점인 핵폭발 실험과 2012년 운반수단(로켓)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궤도에 우주사령부(인공위성)를 자생적으로 쏘아올림으로써, 북한은 핵무력을 보유한 자위 안보무력 강국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명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령도자(김일성-김정일-김정은)=당국가=인민대중=핵무력을 운명적 일체로 공식화하였다. 김정은은 2013년 북조선 헌법에 북조선은 핵무력 보유 자주적 안보강국으로써의 국가정체성을 규정하고, 핵무력은 곧 북조선, 북조선은 곧 김정은, 김정은은 곧 핵무력이라는 등식을 안보와 정치, 두 갈래 노선에서 이데올로기로 완성하겠다 명시하였다(박요한 2015b, 249).

북한 핵무력이란 백두혈통체제를 계승시켜 준 핵심역량을 발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물리적으로 강제화하는 항상적(恒常的)인 안보무력에 해당

한다. 즉, 김정은 정권이 제시하는 ‘핵무력’의 함의는 핵무력 보유와 진화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유지되고 영세중립국으로써의 자주적이고 자위적인 안보능력이 구축된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이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권력을 승계하게 되었다. 권력을 이어받은 이후 로켓발사 성공, 제 3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이 이어 미국과 또다시 첨예한 긴장의 각을 세웠다. 급기야 2013년 말 친중 노선의 총책임자 후견그룹의 좌장이었던 장성택과 그 엘리트들을 척결하였다. 3년 정도에 걸친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일원적 통치구조 정립과정은 전 세계국가들에게는 초유의 권력시스템으로 번역되고 있다(박춘대 2013, 168).

(2) 무의식적 요소[김일성 주체사상은 변형된 한(韓)사상]

‘과정철학’을 수립한 화이트헤드의 현대과학 개념을 철학에 응용하여 과정철학과 한국사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韓)사상’은 하나의 말 속에 일(一)과 다(多)가 동시에 포함되어 비과학적이거나 한국인의 무분별한 사고 방식의 소산인 양 취급되어 왔으나 신과학의 원리와 개념으로 볼 때 한(韓)사상의 범위는 전 우주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창조성’, ‘일’, ‘다’의 셋을 ‘궁극적 범주(Category of Ultimate)’에 넣고 있는데 ‘창조성’이란 일이 다가 되고 다가 일이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화이트헤드 1929, 58). 화이트헤드에게서 ‘창조성(Creativity)’이란 개념은 불교의 ‘무(無, Sunyate)’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완전 유기체적인 개념이다. ‘한’의 사전적 의미 속에 ‘일’과 ‘다’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창조성’ 개념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상일 1993b, 48).

김일성 주체사상은 한(韓)사상의 변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기존에 한반도에 면면히 유지되어 온 한(韓)사상을 토대로 하여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의 인간중심철학을 받아들이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이후라 볼 수 있다. 그 후 유일사상체계가 제시되고 ‘수령론’이 등장하면서 변형되어 1인

독재체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유일사상체제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인 체제에 대한 충성과 신뢰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시대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의 인간중심철학과 한(韓)사상이 결합하고, 권력독재의 수단인 수령론에 의해 왜곡되고, 권력을 승계하려는 목적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변형되며, 공산권 붕괴로 밀어닥친 체제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의 인간중심철학론으로 되돌아와 핵무력의 개발과 핵체제 완성이라는 현상적 실체의 구현, 즉 유물사관의 물리적 실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핵심고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한(韓)사상이다. 따라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라 볼 수 있다.

(3) 정신적 감염(수령·당·대중이 결합된 군중노선)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학예술이 대중화되어야만 역사의 주체이며 세계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문학예술 창조와 그 향유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늘 수 있다.”고 하는 주체사상적 관점에서 있다. 대중의 창조성을 중시하는 문예정책은 계급정책과 더불어 혁명과 건설의 달성을 위한 대중동원 방법 중 하나인 군중노선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 문화예술에서의 군중노선은 문화예술을 직접 창조하고 향유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군중의 혁명화·노동계급화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귀스타브 르봉의 ‘심리학적 군중’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 집단정체성 형성 변화와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북한 집단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특정한 자극 요인’은 ‘6.25전쟁과 미국’이며, ‘무의식적 요소’는 ‘한(韓)사상’이며, ‘정신적 감염’은 ‘군중노선’

이라 할 수 있다. 시기별로 북한집단정체성의 변화는 건국, 한국전쟁 전후(1945-1955년), 김일성 유일사상체제 구축(1956-1970년),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1971-1992년), 사상체제 위기와 핵무력 개발(1993-2006년), 김정은과 한반도 핵체제 구현(2006-2013년)이다.

북한 핵무력의 성격은 역사적 국면과 맥락 속에서 구명될 수 있다. 북한 핵무력은 중국의 노선 선회와 구소련 연방의 해체 속에서 착상되었고, 부시 미 행정부와 중국 주도 6자회담이라는 자양분 속에서 양육되었고, 부시·노무현, 이명박·오바마 정권 10년 동안 진화를 거듭했다. 북한 핵은 중국에게는 ‘핵을 보유한’ 변강 오랑캐 국가의 탄생이었고, 미국에게는 대평양 안보권의 직접적인 위협이며, 핵프로그램 개발 욕망이라는 마력의 지구적 확산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현실적으로 북한 핵은 한반도에 물리적으로 전쟁의 억지 권력을 구축했고, 중-미 관계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조립을 강제한다. 동시에 북한 핵무기체제 현실화는 UN헌장, IAEA, NPT의 관련 규정의 재조립을 강요한다(박요한 2016b, 145).

고대 한민족에게 큰 것이나 커다란 하나에 사상적인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다. 단군 조선의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은 고대 한인들의 사상을 전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안기 1970, 49). 이러한 인간존중의 한(韓)사상은 우리 민족의 삶 가운데 면면히 흐르고 있어 두드러지지 않으나 다른 종교를 수용할 때 수용되는 종교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마르크스 주체사상은 소련 공산혁명을 분단 북한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한(韓)사상과 결합된 뒤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변용되었다. 인간과 물질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인 인간중심철학이 북한에 이식되기 위한 매개적 토양은 바로 전통적인 한(韓)사상과의 결합이었다. 한(韓)사상은 동양에서는 보기 드문 다차원의 초월적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는, 즉 기독교의 창조주와 인격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풍부한 전설과 신화로 축적되어 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한(韓)사상은 인간과 신이 서로 주반(주도자와 반려자)이 되어, 때로는 분리되고 때로는 한 몸이 되어 공진하는, 한민족 특유의 사상체제로 이미 역사화되어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한(韓)사상의 변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기존에

한반도에 면면히 유지되어 온 한(韓)사상을 토대로 하여 마르크스 레닌의 사회주의의 인간중심철학을 받아들이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5년 이후라 볼 수 있다. 그 후 유일사상체계가 제시되고 ‘수령론’이 등장하면서 변형되어 1인 독재체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인 체제에 대한 충성과 신뢰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시대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철학과 한(韓)사상이 결합하고, 권력독재의 수단인 수령론에 의해 왜곡되고, 권력을 승계하려는 목적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변형되며, 공산권 붕괴로 밀어닥친 체제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의 인간중심철학론으로 되돌아와 핵무력의 개발과 핵체제 완성이라는 현상적 실체의 구현, 즉 유물사관의 물리적 실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다. 그 핵심고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한(韓)사상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익진 (1988). “신라중대 화엄사상의 전개와 그 영향Ⅱ.” 『북교학보』. 25권, pp. 107-188.
- 귀스타브 르봉 (2017). 『군중심리학』. 민문홍 역. 책세상.
-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상일 (1993a). “한국철학의 자생성(自生性)은 존재하는가.” 『정신문화연구』. 16권, 3호, pp. 27-44.
- _____ (1993b).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서광사.
- _____ (2000). “주체사상과 단군-통일로 가는 펄지 가도.” 『고조선단군학』. 2권, pp. 145-146.
- 김안기 (1970). “한’의 철학사상소고.” 『철학탐구』. 3권, pp. 41-53.
- 김연철 (2002).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북한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pp. 1-14.
- 김영두 (2006). “한(韓)사상과 민중종교에서 본 남북상생철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32권, pp. 271-305.
- 김일성 (1962).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74-78.
- _____ (1982). 『김일성저작집』. 제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재범 (2014). “華嚴一乘法界圖와 ‘한(韓)사상.” 『한국학논집』. 제57권, pp. 163-190.
- 김정일 (1964).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근로자』. 제3호, pp. 515-526.
- 리능훈 (1967). “군중노선 구현에서의 당사업체제와 사업방법.” 『근로자』. 2호, pp. 11-22.
- 마이크 치노이 (2010). 『북핵 롤러코스터』. 박성준·홍성결 역. 시사IN북.
- 박요한 (2014a). “북한의 주체시간 생성과 구축에 관한 소고.” 『2014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pp. 257-296.
- _____ (2014b). “오래된 미래: 김정은 정권, 2014 성격과 그 벡터.” 『2014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pp. 321-345.
- _____ (2015a). “김일성 유일사상체제는 기독교와 유사한가?” 『2015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pp. 11-31.
- _____ (2015b). “김정은 최후의 도박: 핵무력이 네트워크하는 산유국-북한 주체시

- 간과 핵무력의 6자회담 폐기과정과 그 백터.” 『2015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pp. 239-274.
- _____ (2016a). 『북한 핵 무력의 세계정체성』. 행복에너지.
- _____ (2016b). 『시간과 인간의 운명정체성』. 행복에너지.
- 박종일·김은정 (2008). “집단정체성(group identity)’ 연구에서 ‘근원주의(essent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검토: ‘민족’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3권, pp. 309-323.
- 박춘대 (2013). “북한 핵무력의 동학과 네트워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동만저작집간행위원회 (2010). 『북조선연구』. 창비.
- 오양열·임채욱 (2012). “북한의 군중문화정책.” 『통일과 문화』. 2권, pp. 48-67.
- 이종석 (1993).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이현주 (2011a).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b). “북한 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pp. 291-325.
- _____ (2012).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pp. 135-171.
- _____ (2013). “북한 주민의 정치적 분리와 불안.”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pp. 147-177.
- _____ (2015a).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연구.” 『2015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pp. 33-52.
- _____ (2015b). “탈북청소년과 미래세대의 통합.” 『제11회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자료집』. DMZ학술원, pp. 77-94.
- _____ (2016a). “북한의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사회통합사상: 켄월버의 통합사상 관점을 중심으로.” 『한반도국제포럼 2016 통일·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pp. 97-115.
- _____ (2016b). “북한의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pp. 277-310.
- _____ (2017a). “김병로의 ‘조선’, 한반도 통일과 통합의 근거.” 『정치와 평론』. 20권, pp. 169-177.
- _____ (2017b). “북한의 주체사상과 ‘한(韓)’사상: 켄 월버의 통합심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pp. 211-230.

- _____ (2017c).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관점에서 본 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사회통합.” 『아태연구』, 24권, 제1호, pp. 5-37.
- 전숙자 (1997). “북한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통합의 관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통일연구원, pp. 79-83.
- 정약용 (1990).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9권, 여강출판사.
- 정영철 (2005). 『김정일 리더십 연구』, 선인.
- 정영훈 (2016). “홍익인간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조선 단군학』, 34권, pp. 149-186.
- 정태연 (2000). “남북통합의 사회심리학: 사회정체감과 집단 간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2권, 1호, pp. 268-284.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1996). 『김정일동지 력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최민자 주해 (2015). 『천부경-삼일신고 참전계경』, 모시는사람들.
- 최민홍 (1987). 『한국철학』, 성문사.
- 화이트헤드 (1929). 『과정과 실재: 유기체적 세계관의 구상』, 오영환 역, 민음사, 1991.
- 황장엽 (2008). 『인간중심철학원론』, 시대정신.
- Rogers, Brubaker and Frederick Cooper (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Vol. 29, No. 1, pp. 1-47.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pp. 1-39.

2. 기타

- 에릭 발바흐. “北, 핵개발 정당화 위해 자기 정체성과 외부 위협 활용했다.” 『아세아경제』, 2014년 10월 26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기일원론.”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099. (2017년 11월 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7년 11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11월 28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4 (2017)

**The Process How Kimilsung Juche Ideology has
Realized Nuke Armed Forces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r: Centered around Philosophical Bases
and Changes of Collective Identity**

Pak, Yoha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oongsil University)

Lee, Hyun-Joo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centered around formation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crowd’ of Gustave Le Bon, analyzes the formation and its change of collective identity of North Koreans and the process how the nuke armed forces system has been realized on the Korean Peninsular.

It can be said that The Korean War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specified stimulation ones’ among the formation factors of collective identity which North Korea formed through the ‘psychological crowd’, while ‘unconscious factor’ is Han(韓) Ideology, and ‘mental pollution’ is ‘crowd lines’. Also, Kimilsung Juche Ideology, North Koreans’ ruling ideology is seen as an inheritance of Han(韓) Ideology, a Korean tradition and its process of religious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Since it kept ‘dignity of humanity’ at its first loop where Marx-Leninism and Han ideology were combined, Kimilsung Juche Ideology has been twisted by ‘Great Leaders’, a means of power dictatorship, transformed into ‘Socio-Political Organism’ for the purpose of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returned to Marxist humanism

under the system crisis caused by the collapse of communist block, and finally succeeded in developing nuke armed forces and finishing nuke state system, a physical realization of historical materialism, over time.

Thus, nuke armed forces are a physical realization of Kimilsung Juche Ideology, the core loop of which is Han(韓) Ideology, not Kimilsung Juche Ideology.

- Key words: Kimilsung Juche Ideology, Han(韓) Ideology, Nuke Armed Forces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r, Collective Identify of North Koreans, Crowd Psychology